

파견기간	2021학년도 2학기	<b>교환학생</b> <b>귀국 보고서</b>	소속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파견국가	미국		성명	유윤아
파견대학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작성일	2022.02.14

## 1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및 출국 전 준비

### 1.1 파견 대학 소개와 참가 동기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이하 조지아텍)는 조지아주의 Atlanta에 있는 대학교로 공과대학 중심의 학교입니다. 저는 학업과 여행의 두 목적을 갖고 교환학생을 계획하였습니다. 조지아텍은 미국의 동남부에 있어 주변 도시로의 여행이 용이하고, 기계공학으로도 Top 3위권에 드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에서 공부해보고 싶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1.2 조지아텍 캠퍼스 안내

조지아텍 캠퍼스는 Atlanta의 Midtown에 위치해 있습니다. 캠퍼스의 동쪽(East Campus)이 Atlanta Midtown과 바로 이어져 있는 구조로, 도보로 어렵지 않게 Midtown에 있는 식당 및 상점을 갈 수 있습니다. 2-C에 언급되어있는 I-house라는 교환학생들이 머무르는 기숙사도 이 East Campus에 있어 Midtown과 매우 가깝습니다. 이외에도 football 경기가 열리는 bobby dodd stadium, 학식을 먹을 수 있는 North Ave와 Brittain, 그리고 fraternity(남자 사교 단체)와 sorority(여자 사교 단체)가 East Campus에 있습니다.

캠퍼스의 중앙에는 서울대학교의 총장잔디와 유사한 Tech Green이 있습니다. 다양한 축제 및 행사, 동아리 홍보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서쪽에는 기존에 많은 식당이 있는 Student Center가 있었으나, 2021년도 2학기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이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충분하지 않아 점심때마다 Tech Green에 푸드트럭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Tech Green의 동쪽에는 도서관이 있으며, 세 개의 건물(Clough, Price Gilbert, Crosland)로 이루어져 있고 학생증만 있으면 24시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의 서쪽 (West Campus)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CRC (Campus Recreation Center)가 있습니다. 헬스장, 스크린 골프장, 올림픽 경기에 사용되었던 수영장 등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으니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CR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West Campus에는 Panda Express 등 임시 식당이 들어와 있는 Exhibition Hall과 카페인 Rising Roll 등이 있으며, 캠퍼스 서쪽으로 나가면 맛있는 카페와 식당이 많습니다. 다만 캠퍼스의 서쪽은 치안이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애틀랜타 교통과 생활

Midtown에 다양한 전 세계의 음식을 파는 식당과, Publix라는 큰 마트도 있어 생활하기 매우 편리한 편입니다. Midtown은 캠퍼스에서 가깝기 때문에 도보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으나, 편의를 위해 자전거를 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Midtown이더라도 Atlanta가 치안이 좋지 않은 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해가 진 이후에는 혼자서 캠퍼스 밖을 걸어 다니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애틀랜타는 한인이 많은 도시인만큼, 근처에 규모가 큰 두 개의 한인타운(차를 타고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Doraville과 40분 거리에 있는 Duluth)가 있습니다. 학기 초에 같은 과의 한국 친구들과 회식을 하러 가거나, 종종 한식을 먹고 싶을 때 친구들과 Uber를 타고 방문하였습니다. 떡볶이, 삼겹살, 곱창, 닭발, 회 등 다양한 한식을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래방도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두 한인타운에 모두 있는 H-mart라는 큰 한인 마트에서 다양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Atlanta 내에서 돌아다닐 때에는 MARTA라는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Uber나 Lyft (택시), 혹은 Bird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였습니다. MARTA의 경우 치안이 좋지 않고 노선도 한정적이라 낮에 여러 명이 탈 때 외에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Uber와 Lyft의 경우 여러 명이 이동을 할 때 자주 이용하였으며, Bird는 주로 혼자 이동할 때 걸어가기엔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경우 이용하였습니다.

학교 내부의 교통으로는 먼저 무료 순환 버스가 있습니다. GT Buses 앱으로 실시간으로 버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버스의 노선도 다양하여 이용하기 편리한 편입니다. 또한 Stingerette이라는 학교 택시가 있는데, 오후 8시~새벽 3시까지 운영하며 캠퍼스 내부~한 블록 외부 정도까지 운행을 하여 늦은 밤 귀가를 할 때 이용하기 좋은 수단입니다.

### 1.4 출국 전 준비사항과 보험 관련 정보

출국 전에는 DS-2019 등 비자를 발급받고, immunization 서류 등을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대사관에 가서 간단한 면접도 봐야 하므로 서울대학교 및 조지아텍 측의 안내 사항을 따라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자 대기 인원이 많은 경우 비자 면접 날짜가 많이 차 있고 비자가 발급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원하는 날짜에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비자는 최대한 미리 발급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출국 한 달~한 달 반 전쯤 비자를 발급받으려 하니 날짜가 매우 촉박하였습니다. 최소한 두 달 전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mmunization 서류의 경우 여러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맞은 적이 있는지 병원에서 확인받고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인데, 인터넷에 유학생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검색하여 이를 해주는 병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아직 맞지 않은 백신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출국 전 많은 생필품을 챙겨간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지아텍에 온 이후에도 Amazon, Ikea, Publix, H-mart 등을 이용하여 식료품 및 생필품을 모두 구할 수 있으니 많은 것들을 들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조지아텍에 도착한 날 Ikea와 Publix에 가서 침구류 등 생필품을 모두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Amazon을 이용하면 학교 바로 앞 hub까지 배송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에 있는 동안 두 번 정도 감기로 고생하였는데, 미국은 의사를 만나서 약을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PCR 검사를 받고 신청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의사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통해 비대면으로만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Publix 등의 마트에 있는 약국에서 미국 약을 살 수 있긴 하나, 평소에 자주 드시는 약은 챙겨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의 경우 몇 년 전에는 학교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Waiver 서류를 제출하면 학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 규정이 바뀌어서 현재는 모든 학생이 학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비만 1000\$에 가깝기 때문에 비싼 편이지만, 현재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 2 세부 경험 내용

### 2.1 현지 적응 과정

#### 2.1.1 Faset Orientation

Faset Orientation은 조지아텍 캠퍼스에 처음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으로, 교환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Faset Orientation은 가을학기(한국 기준 2학기)에만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강 전 주 목요일에 이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으며, 이 때 조별/전공별 그룹으로 나눠 다양한 정보를 얻고 socializing도 할 수 있었습니다. 수강신청도 이 날 진행이 되는데, 교환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이 수강신청을 한 후 남은 자리에 들어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원하는 과목을 모두 수강하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전에 듣고 싶은 과목들을 실제 들을 과목들보다 많이 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 2.1.2 은행 계좌 및 핸드폰 유심

저는 학교에 도착한 후 첫 주에 Bank of America에 가서 은행 계좌 및 Debit Card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 계좌 및 카드가 있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에 만드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학교 근처에 Bank of America가 두 지점 정도 있기 때문에 예약 후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핸드폰 유심은 한국에서 유학생 유심을 사서 가는 친구도 있고, 미국에서 유심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도착한 첫 주에 T-mobile에서 월별로 금액을 내는 요금제에 가입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50\$/월에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2.2 학업

저는 Fundamentals of Mechatronics, Special Topics – Data Foundations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for Machine Learning, Biomedical Instrumentation, Undergraduate Research의 총 네 개의 과목(12학점)을 수강하였습니다. 교환학생의 경우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 12학점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Fundamentals of Mechatronics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메카트로닉스와 유사한 수업으로, 실험과 퀴즈가 매주 있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Special Topics는 항상 열리는 정규 강의가 아닌, 특강 형식의 강의입니다. 수강 신청 사이트에서 Special Topics라고 되어있는 강의의 상세보기를 들어가 보면 특강 주제와 실러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Biomedical Instrumentation은 전기정보공학부(ECE)의 강의로,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 매우 재미있게 수강하였던 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Undergraduate Research는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며 학점을 얻을 수 있는 강의입니다. 1~3학점, 혹은 그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학점 수도 매우 다양하며, 개강 전 연구실 인턴을 하고 싶은 교수님께 메일을 드리면 교수님께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 2.3 생활

### 2.3.1 I-house

I-house는 교환학생 24명과 조지아텍 학생 24명이 머무르는 기숙사입니다. 위치는 캠퍼스 동쪽으로 Fraternity와 Sorority 사이에 있어, 가끔 시끌벅적한 일들이 발생하긴 하나 교환학생들이 미국 학교 문화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기숙사인 것 같습니다. I-house에 살지 않는 경우 2021년도 2학기 기준으로 off-campus 집을 구하여야 하는데, 단기로 한 학기 정도 머물 수 있는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집을 구하는 외국인 학생의 입장에서 사기 등 다양한 어려운 상황에 맞닥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I-house에 거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house는 출국하기 4~5달 전에 안내 메일이 오고, 안내 사항에 따라 작성해서 보낸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24명의 교환학생을 선발합니다. 교환학생은 매우 많고 대부분의 교환학생이 I-house에 살고 싶어 하는 반면 선발하는 학생 수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2.3.2 타교 한국 교환학생

2021년도 가을학기 기준 서울대학교에서 2명, 연세대학교에서 3명의 교환학생이

조지아텍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많은 학생이 파견된 편은 아니었으나, 이 한국 학생들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연휴에 한국 학생들과 여러 도시로 여행을 다닌 것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이 친구들 덕분에 외국에서의 외로움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학생들과만 어울리게 되면 교환학생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으며 외국 학생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도 재미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4 놀거리와 즐길거리

### 2.4.1 다양한 학교 축제 및 운동 경기

조지아텍 내부에는 football, baseball, basketball 등 다양한 운동 경기장이 있으며, 가까운 위치에 Mercedes Benz Stadium이 있어 종종 이곳에서 운동 경기가 열리기도 합니다. 저는 Mercedes Benz Stadium에서 열리는 football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football 규칙을 잘 모르는 데도 불구하고 경기의 규모도 크고 경기 중간 다양한 행사 및 공연들도 있어서 매우 재미있게 관람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근처 놀이공원인 Six Flags over Georgia를 하룻밤 동안 빌려 조지아텍 학생들만 입장할 수 있게 해주는 행사도 있습니다. 평소보다 저렴한 입장료와 짧은 대기 시간으로 많은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으니,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all Semester에는 Six Flags를 가지만, Spring Semester에는 Georgia Aquarium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4.2 Atlanta 내 관광지

대표적으로 Georgia Aquarium과 World of Coca-Cola가 있습니다. 각각 굉장히 큰 아쿠아리움과 코카콜라 박물관으로, 한 번쯤 방문해 볼 만한 관광지입니다. 이외에도 Atlantic Station과 Ponce City Market이 있는데, 음식점 및 쇼핑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근처에서 외식을 하고 싶을 때 가기 좋은 위치이며, 겨울철에는 Atlantic Station에서 아이스링크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4.3 동아리 활동

조지아텍에도 많은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있습니다. 특히, 운동 관련 동아리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교환학생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 외에도 CRC에서 주관하는 하이킹 등의 운동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2.4.4 근처 도시로의 여행

출국을 하기 전에는 아무리 교환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기 중에는 학업으로 인해 바

빠 여행을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생각보다 학교가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하는' 분위기여서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근처 도시들로 여행을 간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 학교의 가을학기에는 fall break과 thanksgiving break 등 긴 방학들이 있어서 이 시기에 여행을 가기 매우 좋은데요, 특히 fall break의 경우 학기 중간에 쉬어가는 느낌으로, 중간고사 직후에 있어 숙제 및 시험이 없는 기간입니다. 이때 저는 Orlando의 Disney World에 놀러 가서 매우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Thanksgiving break 때는 New York에 다녀왔으며, 이외에도 Boston, Miami, Chicago, Chattanooga 등 다른 도시들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애틀랜타는 미국의 교통 요충지이며, 다른 도시로의 비행 기표가 10만원 내외로 저렴한 편에 속했기에 다른 도시들로 여행을 자주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추후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하여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 3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처음에 출국할 때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약 반년의 시간 동안 혼자 지내게 된다는 사실에 막연히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기여서 이 불안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이러한 불안감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교환 생활 중 가장 좋았던 점은 학업을 열심히 하면서도 충분히 교환학생 생활을 즐기다 올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느라 개인 시간이 많지 않았던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논다'는 분위기 속에서 평일 저녁 및 주말에 충분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업과 휴식을 모두 챙긴 교환학생 생활이었기에 전혀 후회가 남지 않으며,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로 교환학생을 간 것은 제 인생에 최고의 선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